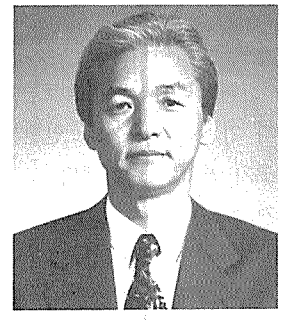
어느 연구원의 화려한 외출



김 한 식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

「이젠 더이상 연구소에만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제가 아는 기술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모 국책연구소에서 10여년간 연구개발에 종사해왔던 L박사, 새해엔 40고개에 접어드는 유능하고 패기 만만한 후배 기술자와의 오래간만의 만남에서 나온 얘기였다. 대학생활부터 거의 17년을 특정 기술분야에 몸담았던 그는 할 얘기가 많았다.

「공학박사인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이나 몇편쓰고, 대충 실적이나 올리는 특허제출이 내가 할수 있고, 해야만 할 일이 전부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서서히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야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국내 산업기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공학도들이 분발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의 국내산업기술의 개발에 공학도들의 기여가 너무 적다는 얘기다.

그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에서 10여년간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할 때에는 이를 생산할 반도체 공정장비까지 개발하느라 엄청난 정열을 퍼부었던 것이다.

공정기술과 장비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특허와 함께 외국에서의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도 확인하는 등 개발자로서의 보람도 느꼈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실험실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산업화 되어야만 기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이해합니다. 새로운 공정과 장비를 생산공정에 새롭게 채택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데에 신중해야 하지요. 문제는 이러한 신중한 자세가 결국 신뢰도가 쌓인 외제기술과 장비에 의존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손색이 없는 국내기술이 신뢰성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이유하나로 외면 당해 버리는 국내의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국내 산업의 불균형 발전쪽으로 옮겨간다.

「올해 국내 전자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호 경기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분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반도체 생산 수준에 걸맞게 반도체 재료, 공정장비, 시험장비 산업도 균형 있게 발전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발전은 수차례 지적되어온 문제였

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만 치중되어온 산업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두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주문형반도체(ASIC)를 위시한 소위 시스템 IC설계기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재료, 특수가스, 패키지 등 주변기술의 취약점은 적지 않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외에도 새로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조공정 장비의 설계, 제조 기술의 해외 의존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동안 반도체 강국으로 남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수년동안 있었는데도 왜 우리나라는 해결책을 찾는데 이토록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안 정부와 산업협회 등에서 검토 되었던 좋은 대책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기술현장인의 불만이었다.

결국 이젠 기술을 아는 자가 직접 산업현장에 가깝게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큰 모험일수 있는 연구원 창업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접근하여 사업도 일구고,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을 해결하겠다는 공학도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결성된 Venture기업인 모임에 참가하여 공학도로서 산업에 기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새롭게 다졌다고 한다.

메디슨의 이민화 사장을 중심으로 모이게된 이 모임은 기술 창업인들의 긍지와 애환이 엇갈리는 매우 열띤 분위기 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기술하나만을 믿고 우선 사업보다는 배운 기술로 산업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온갖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이분들중에는 사업측면에서도 성공한 몇분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난관을 이겨가며 창업 초기의 의지를 실현코자 아직도 연구실, 공장, 은행, 관청 등을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다.

이들 기술창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없이 많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 산업에 널리 퍼져있는 우리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다.

외국기술이라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기술 검증만으로 비싼대가를 치루고 들여오는데, 정작 비교적 저렴한 우리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성능 입증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에 이르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기술창업인들의 공통된 생각은 편협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금조달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기술창업인들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다.

어떤 창업인은 기술과 제품개발보다는 자금 마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문제가 아닐수 없다. 기술을 담보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창업기술들은 대부분 창조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뚜렸한 가치있는 기술들이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기술=담보」라는 인식의 확산과 이를 검증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기술이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진 자에 희망적인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정부도 구호성 정책발표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부각론과 실천 방안이 담긴 현실성 있는 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업계도 이젠 우리기술에 대한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정할 때입니다. 한 해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우리 기술인력을 외국기술의 검토자, 외국기술의 현장감독자에 머무르게 해서는 기술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흥분을 가라 앉힌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젠 우리기술의 산업화에 투자해야 하고, 성공한 기술 창업인들이 후배 기술개발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이런 기운이 국가의 산업기술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애정과 지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전자기술분야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며 어느 연구원의 화려한 외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본다.